

# 한전 '에너지밸리' 조성 6년...2단계 목표는 '질적 성장'

### 유치 기업 530개사...투자협약 2조5749억원·1만1714명 고용 한전공대·지자체 등 협력체계 강화...입주 기업 다각적 지원 노력 내일부터 12일까지 '빅스포' 30개사 참여 일자리박람회도 진행

한국전력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에 조성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유치 기업이 530개사를 넘겼다.

한전은 에너지밸리 조성 2단계를 맞아 내년 개교할 한국에너지공대와 지자체, 관련 연구기관들과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해 에너지밸리 기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8일 한전에 따르면 에너지밸리 투자협약기업은 올해 5월 말 기준 530개사를 달성했다.

한전은 나주 혁신도시와 광주·전남 인근 산단을 에너지밸리로 묶어 에너지 신산업 우주 기업·연구소를 유치하고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세계

적인 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2015년 3월 나주 혁신산단 등에 11개사를 시작으로 2015년 77개사→2016년 100개사→2017년 103개사→2018년 80개사→2019년 70개사→2020년 71개사→올해 5월 말 기준 29개사 등이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을 맺었다.

한전 주도로 지난해까지 진행된 에너지밸리 조성 1단계에서는 목표(500개사)를 넘는 501개사를 유치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2단계 에너지밸리는 한전과 지자체·유관기관이 상호 협력해 많은 기업이 실제 투자실행을 할 수 있도록 질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목표다.

투자협약 금액은 총 2조5749억원에 달한다. 협약 맺을 때 약속한 고용인원은 모두 1만1714명이다.

투자지역별로 보면 ▲나주 혁신산단 175개사(보성파워텍㈜ 등) ▲혁신도시 클러스터 44개사(넥스셀 등) ▲광주 도시첨단산단 37개사(LS산전㈜ 등) ▲광주 진곡산단 16개사(문암이앤알㈜ 등) 등에 분포돼있다.

투자 업종은 전력 정보통신기술 ICT(143개사), 신재생에너지(125개사), 에너지저장장치 ESS(72개사)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가 전체의 79.7%(420개사)를 차지했다. 나머지 20.3%는 전력 기자재 부문이었다.

한전이 지난해 말 투자협약을 맺은 501개사를 조사해보니 투자를 실행한 기업은 254개사로, 전체의 51%로 나타났다. 이중 223개사는 공장을 가동하거나 건설 중이었고, 나머지 31개사는 용지를 매입했다.

한전은 개발도상국 에너지사업 진출을 위한 인

적 교류망을 강화하고, 인재 채용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앞서 4월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국제에너지정책과정(IEPP)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국제에너지정책과정은 개도국 에너지부처 공무원에게 국내 석·박사과정을 지원해 '지한파'를 만들고,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에너지 분야 수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서울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다.

이번 협약은 해외 사업 발굴 및 교육 지원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한전은 에너지밸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기관은 이를 위해 에너지밸리 기업의 인턴십 지원, 개도국 에너지 산업화에 대응한 개발 협력 지원, 개도국 에너지사업 진출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제공, 글로벌 에너지분야 정보 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한전은 에너지밸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동반성장을 위해 업무별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출 금융과 국제계약업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 금융 분야에서는 9일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보증기관의 보증보험료 할인 ▲수출채권 매입 수수료 우대 ▲대출금리 우대 ▲외국환 거래 전반에 대한 맞춤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한다.

국제계약 법무 업무를 두고서는 ▲국제계약서 검토·작성료 할인 ▲영문 계약서 작성·번역 지원 ▲법률검토·상담 등도 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 간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 종합에너지박람회 '빅스포 2021'에서는 '에너지밸리 일자리박람회'가 함께 진행된다.

에너지밸리 30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채용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 이력서는 오는 10일까지 잡코리아(myjob.jobkorea.co.kr)를 통해 받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종합소득세 30일까지 중간납부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인 개인사업자 153만명 가운데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88.9%)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징해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하는 제도다.

당초 중간예납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직권연장 대상자는 내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직권 연장 대상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소규모 자영업자다.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인 집합 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임대인의 임대료를 인허해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 임대사업자는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15억원 ▲숙박·음식·제조업 등 7억5000

만원 ▲서비스업 5억원 등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할 수 있다.

중간예납 대상자 중 직권 연장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17만명은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을 해야 하지만,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도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나 손택스, 국제계좌,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직접 내도 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나눠 낼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 콘텐츠 기업 7개사 '넥스트콘텐츠페어' 간다

### 11~13일 부산 벡스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광주 콘텐츠 기업 7개사의 '2021 넥스트콘텐츠페어' 참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2021 넥스트콘텐츠페어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다. 지역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 대표 콘텐츠 박람회로서 콘텐츠 관련 업체 전시, 국내외 비즈니스 상담 등으로 운영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콘텐츠코리아랩은 3년 이내 초기 창업 콘텐츠 기업 대상으로 창업 및 제작지원,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지역 기반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넥스트콘텐츠페어 참가 기업을 모집했다.

선정된 7개 기업에는 광주 곳곳을 배경으로 추억의 노래를 들려주는 친니친니 크리에이티브랩(대표 오영석)과 웹드라마 제작사 바닐라씨주식회사(대표 임수정), ㈜오로지스튜디오, ㈜미니페이, 더블 K, ㈜캡쳐플래닛, 공감미디어 등이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황토옹기 '당아리'에 김장 보관하세요 8일 (주)광주신세계 지하 1층 행사장에서 밀폐가 가능한 옹기로 유명한 '당아리' 직원들이 다양한 사각형 그릇들을 선보이고 있다. 오는 18일까지 운영되는 이 매장에서는 황토옹기 등 인기상품을 할인가에 내놓는다. <광주신세계 제공>

## 사학연금, 비대면 '핸즈온 봉사' 참여자 모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비대면 봉사활동을 펼칠 '핸즈온 봉사' 단원을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 사학연금 수급자라면 지원할 수 있다. 이달 12일까지 사학연금 홈페이지(tp.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가자들은 직접 편백나무 베개를 DIY 방식으로 만들게 된다. 완성품

은 12월10일까지 수합한 뒤 노인복지관, 복지센터, 소외가정 아동 등에 전달한다.

사학연금은 은퇴한 사학연금 수급자들의 사회 참여를 돕고, 비대면 봉사 활성화를 위해 이 행사를 기획했다. 'TP 나누리 봉사단' 참가자의 경우 실적 인증(1시간)을 받고, 일반 연금수급 참가자에게는 5000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이 주어진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60.20 (-9.07)
↑ 코스닥	1002.50 (+1.15)
↓ 금리(국고채 3년)	1.906 (-0.038)
↓ 환율(USD)	1183.10 (-2.10)

#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손해보험협회